

## 잃어가는 우리의 가치

김 성 훈 / 생명의 전화 간사

고민과 갈등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갈등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항상 고투하고 소외된 느낌을 갖을 때가 많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가장 친하다는 친구간에도 진실과 사랑이 걸도는 경우를 종종 격게된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부모 형제에게도, 선생님이나 선배에게도, 믿을만한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게 무엇일까? 아니 털어놓을 수 없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자존심 상한다거나,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이유들이라고 한다. 그럼 그런 고민거리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스스로 그들로 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빠르게, 무섭게 변했다고, 변

해간다고들 한다. 사실이 그렇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바로 몇년전과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스스로들 느끼게 된다. 산업화라는 물질문명의 발전과 전통문화, 서구문화, 국적 불명의 문화들이 엮어내는 정신없이 빠른 사회의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특히 중년기 이상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욱 그러한 변화 때문에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라는 비탄조의 푸념도 하게된다.



현대 문명의 이기인 전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보급률이나 이용률이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전화를 통한 대화는 장소적, 시간적 편리함으로 현대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전화를 통한 각종 상담과 서비스 상품이 홍수처럼 개발되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속에서 전화를 통한 카운셀링, 인생상담이 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전화상담의 특성은 비밀성, 의명성, 편의성, 주시성 등을 들 수 있다. 남에게 내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이름이나 얼굴을 내놓지 않고도 상담이 가능하다. 예약 등의 번거로움 없이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밤중에도 휴일에도 언제나 이용이 가능한 기관도 생명의 전화를 비롯한 몇몇 기관이 있다. 고독과 불안과 생의 여러 위기감을 느낄 때 이렇게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의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다.

전화를 통한 상담은 그래서 더 절실하고 애절한 사연이 많다. 또 그 이면에는 고민과 문제의 무거움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진실과 용기를 오히려 외면해버린 경우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보다는 원망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치관의 혼란을 주게되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양보, 이해, 용서, 사랑, 희생 등을 미덕이요 우선적 가치로 꼽으면 서도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으로 일관하게 되곤 한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무엇이



분명한 가치를 갖지 못한  
결혼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서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진정한 선인지 분별할 때, 이러한 가치관들이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고 확대될 때가 많다.

청소년의 문제가 한참 관심의 대상이 된 때부터 우리는 모든 청소년들의 문제에만 그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왔다. 그 문제의 발생보다 건전한 가치관을 배우고 익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흔히 좋은 친구만 사귀고, 공부에만 열중하여 일류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출세(?)하여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도식외에는 모두 경계되고, 나아가서는 옳지 못한 악한 것으로만 구분되는 가르침 속에서 한번쯤 격게되는 고민-이성교제, 성적 충돌이나 갈등, 음주, 흡연에 대한 호기심, 장래에 대한 불안, 적성과 희망 또는 희망과 현실의 괴리감, 여러가지 유혹과 그 유혹을 경험함으로써 생겨난 갈등 등-들은 나를 옳지 못한, 악한 또는 못난 부류의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이런 상황은 더 나아가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게 하여 나의 행동을 감추고, 거짓말하게 되고, 자기 변명, 거짓 합리화로 일관하게 하고 더더욱 죄의식마저 잃게하는 경우도 흔하게 된다.

사랑과 결혼의 경우도 그렇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외형적 사랑—눈에 보이는 것, 즉 잘생기고, 늘씬해야 함이 첫째 조건이고, 돈 씹씹이에 구애받지 말고, 적당히 퇴폐적(?)이어야 하는 등이 사랑과 연애의 조건이나 결혼과 꼭 관련되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사고가 되어가고 있다. 또 셋방살이부터이거나, 시부모를 모신다거나 학력이나 직장이 좀 쳐진다 면 결혼하기 곤란한 상대라거나 이정도 면 상대방에게 좋은 대우를 받아야 당연하다는 생각 즉 혼수나 지참금, 예단, 속된 말로 열쇠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사고들은 평상시에는 무관심하거나, 나는 그럴리 없다고 생각되다가도 정작 내 문제나 내 자녀나 형제의 문제로 부각되면 흔히 '할 수 없이'라고 넘어가게 된다. 분명한 가치를 갖지 못한 결혼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해결할 방법을 찾



지 못하거나 서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부부란 이십여년동안 다른 환경 속에 성장한 남남끼리의 만남에서 출발하니 문제가 발생하거나, 갈등을 빚게 마련일테지만, 서로 의논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하면 문제의 초두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이란 말조차 점차 줄어들었다. “핵가족이란” 개념속에서 시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당연하여 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어머니의 무지와 이해의 부족, 질투로 인한 호된 시집살이가 줄어드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서로 애써 외면하려는 등 가족이라기 보다는 이웃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또 며느리 시집살이, 아들 시집살이 하는 시어머니의 서러움도 이젠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왜들 이렇게 되어갈까? 자기 중심적 가치관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 부쩍 자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학업과 진학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자살한 중·고등학생, 생계나 전세금 등으로 비관하여 동반자살한 가족, 이런 자살외에도 살인강도, 변심한 애인의 가족을 살상한 청년들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인명경시라는 극한 상황을 맞게되었음에 한숨을 쉬게된다. 이런 각박하고 극한 상황속에서도 잠시만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 여유가 있었다면, 누군가 그 괴로움을 진정 들어줄 사람이 있어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들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왜 우리 모두 이렇게 변해가는 것일까? †